

# 기독교 박해지수

## WORLD WATCH LIST 2026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기독교 박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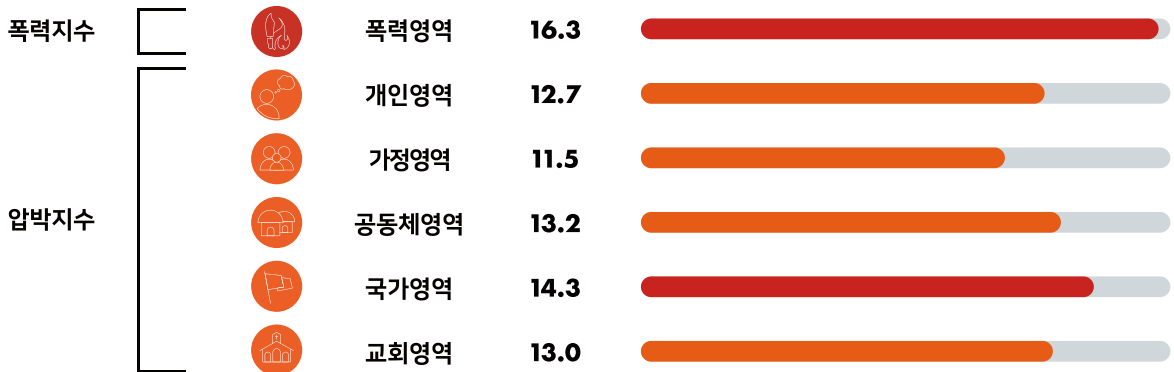
14위

### 미얀마 (MYANMAR)



© Alamy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 중요한 발견

미얀마는 종교 박해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 뿌리에는 버마인은 곧 불교도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다른 종교들은 흔히 외래적이며 국가 통합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독교인들은 교회 등록, 신분증에 종교를 기재하고 인정받는 문제에서 제약을 받으며, 불교 의식에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수많은 차별과 압박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내전과 대지진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제 5년째에 접어든 분쟁은 특히 상당한 기독교인 인구가 거주하는 소수민족 지역에서 더욱 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350만 명이 넘는 국내실향민이 발생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UNHCR, 2024). 2025년 3월에 발생한 규모 7.7의 지진은 이 위기를 한층 가중시켜, 3,745명이 사망하고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배신으로 여기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추가적인 박해를 겪는다. “불교만 허용되는” 마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물과 같은 기본 자원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할 수 있다. 비 전통적 교회들과 농촌 지역 교회들 역시, 특히 복음 전도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표적이 된 반대에 직면한다.

# 미얀마 (MYANMAR)

## 국가 정보

지도자 :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권한대행 대통령

인구 : 55,337,000명

기독교인 수 : 4,632,000명<sup>1</sup>

주요종교 : 불교

정부형태 : 군사 정권



##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4,632,000	8.4
불교	41,143,000	74.3
민속종교	5,119,000	9.3
기타	4,443,000	8.0
	<b>합계</b>	<b>100%</b>

출처<sup>2</sup>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에서는 민족 간 긴장과 자치 요구로 인해 수십 년간 군부 통치가 이어졌다. 짧은 민주화 이행기는 2020년 선거 이후 아웅산 수치의 선출된 정부가 축출되면서 끝났다. 2021년 2월,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행정위원회(SAC)를 구성했다. 그 이후 군사정권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초법적 살해를 자행하며, 자의적인 체포를 행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대응하여 축출된 의원들과 민주주의 지지 세력은 민족무장조직(EAOs) 및 지역 저항 단체들과 연대하며 국민통합정부(NUG)를 구성했다.

기독교인들은 이 분쟁 속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정부군은 기독교인이 다수인 친주, 카친주, 카야주 뿐 아니라, 기독교인이 소수인 사가잉 지역과 양곤 지역, 그리고 카렌주, 라카인주, 산주에서도 교회를 폭격하고 민간인을 살해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난민촌과 교회, 또는 외딴 정글 지역으로 피신했으며, 그곳에서

심각한 식량 부족과 제한된 의료 접근에 직면해 있다.

2024년, 군사정권은 젊은 남성과 여성이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군 징병제를 도입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동에 대한 강제 징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랐다(HRW, 2025). 일부 민족무장조직(EAOs)도 가구마다 남성 1명을 내도록 요구하는 등 자체적인 형태의 강제 모집을 도입했으며, 이는 이미 취약한 공동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탈출을 시도하도록 내몰고 있다. 기독교 소수자들은 쿠데타 이후 아편 생산과 인신매매의 중심지가 된 무법 상태의 국경 지역에도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국가의 통제가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며, 범죄 활동이 만연해 있다.

기독교인들은 쿠데타 이전부터도 박해를 받아 왔다. 2015년의 '인종 및 종교 보호법'은 불교-버마족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종교 개종, 종교 간 결혼, 재생산권을 제한했다. 이 법은 주로 무슬림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기독교 개종자들에게도 엄격한 행정적 요건을 부담으로 지우고 있다. 마바타와 같은 민족주의 단체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계속 활동하며, 특히 불교 배경에서 개종한 이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불교만 허용되는" 공동체(거의 모든 주민이 불교를 믿는 곳)에서는 기독교인 가정의 삶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물이나 공동체 자원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기도 한다. 개종자들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압박과 거부를 겪는다.

<sup>1</sup>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sup>2</sup>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개신교는 미얀마 기독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미얀마침례교협의회는 교인 수를 18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WCC, 2025). 이들은 주로 친족, 카친족, 카렌족 가운데 분포해 있다. 전통적인 교회 집단과 새롭게 형성된 교회 집단 모두 괴롭힘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이나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그러하다.

##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 종교적 민족주의 -

#### 불교와 민족·종교적 적대감의 결합

미얀마 인구의 약 60%는 버마족이며, 버마족이라는 정체성은 불교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비(非)불교인들은 종종 외래적인 존재이자 국가 통합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마바타와 같은 급진적 불교 단체들을 지원해 왔으며, 일부 구성원들은 군사정권 아래에서 지방 행정관으로 임명되기까지 했다.

####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미얀마는 군부 통치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짧은 민주주의 시기에도 군부는 핵심 부처와 의회 의석의 25%를 장악하며 상당한 권력을 유지했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권력 장악을 더욱 강화했다. 한 전문가는 버마 정부의 '통치할 권리'가 중국의 천명사상과 유사하게, 불교인이 거주하는 세계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능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정부의 통치가 충분히 미치지 않았던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교를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일로 여겨진다.

####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미얀마의 옥, 목재, 아편과 같은 천연자원은 소수민족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미얀마는 아시아 최대 아편 생산지 가운데 하나인 '골든 트라이앵글'의 일부이기도 하다. 군부와 민족무장조직(EAOs)은 모두 이러한 막대한 이익이 걸린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부패에 저항하는 기독교인들은 양측 모두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특히 산주와 라오스 및 태국 접경 지역의 무법 지대는 계속되는 내전 상황 속에서 조직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지난 1년 동안 미얀마 전역에서 분쟁이 격화되면서, 많은 기독교인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이미 2025년 3월의 치명적인 지진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가잉 지역에서는 쉼보와 예우의 기독교인 마을들이 표적이 되었다. 기독교인이 85~92%를 차지하는 친주에서는 공습과 교회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인 카친주에서는 카친독립군의 대규모 공세로 인해 주민들의 이주가 발생했다. 산주에서는 총돌이 300% 급증했으며, 라카인주의 전투는 친주의 팔레트와까지 확산되었다. 전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여러 분쟁 피해 지역에서 심화되는 폭력, 강제이주, 조직적인 표적화에 직면하고 있다.

## 누가 영향을 받는가?

###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특히 소수민족 지역의 공동체들은 기독교를 외국의 영향력과 결부된 것으로 보는 군부로부터 압박과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는 군부와 민족무장조직(EAOs) 사이의 분쟁 지역에 자주 갇히게 된다. 군부는 기독교 상징물과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왔다.

### 기독교 개종자

개종자들은 당국, 가족,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버마족에게 불교를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개종자들은 종종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추방당한다. 마바타와 같은 급진적 불교 단체들은 특히 불교 배경에서 나온 기독교인들을 감시하고 있다. 소수의 로힝야족 기독교 개종자들도 자신들의 민족적·종교적 소속 때문에 박해를 겪고 있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많은 복음주의 및 오순절 교회 공동체들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공동체로부터 괴롭힘, 위협, 교회 활동 중단 압박을 포함한 침해를 겪고 있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미얀마의 기독교인 여성들은 2021년 쿠데타 이후 더욱 심각해진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군부는 소수민족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문화적 낙인은 피해자들의 침묵을 강요하며,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카친족 기독교인 여성들은 여전히 강제결혼과 성적 착취를 위한 중국 인신매매에 취약하며, 로힝야족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납치와 강제개종에 직면해 왔다. 여성 개종자들은 종종 추방되거나, 가택 연금 상태로 감금되거나, 강제결혼 또는 강제이혼을 당해 안전과 지지를 잃는다. 또한 비(非)기독교인과 결혼한 기독교인 여성들은 법적 압박으로 인해 남편의 종교를 따르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거주지 혹은 국가를 떠나도록 강요
- 강제이혼
- 강제결혼
- 인신매매
- 폭력 - 성적

### 남성

미얀마의 기독교인 남성들은 특히 실직, 강제퇴거, 강제노동에 취약하며, 이로 인해 가족의 생계 기반이 무너진다. 개종자들은 조롱, 위협, 구타, 배제에 직면하고, 군대에 있는 이들은 괴롭힘을 당하며 예배를 거부당하고 강제노동에 동원된다. 2024년 징병법은 강제 모집의 위험을 더욱 높였으며, 기독교인들이 때때로 분쟁 지역에서 길잡이로 이용되기도 한다. 체포와 고문 역시 계속되는 위협이다. 나따라 학교들은 기독교인 소년들을 대상으로 불교 관습을 강요하고 승려로 양성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의 미래를 약화시키고 있다.

###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양심에 반하는 군대·민병대 징집 및 복무 강요
- 인신매매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월드 와치 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14	81
2025	13	81
2024	17	79
2023	14	80
2022	12	79

전체 점수는 변동이 없었지만, 극도로 높은 폭력 점수는 16.5점에서 16.3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살해 사건과 구금된 사람의 수는 증가한 반면, 교회 공격 건수와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수는 감소했다. 지역 사회 영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압박이 매우 소폭 상승했다. 교회들은 기독교인이 다수인 친주, 카친주, 카야주뿐 아니라, 기독교 소수자가 강하게 존재하는 카렌주, 라카인주, 북부 산주에서도 공격을 받았다. 군사정권은 2025년 12월로 계획된 선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영토를 다시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전투가 더욱 증가했다. 이 선거는 인구의 상당수와 많은 국제 관찰자들에 의해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거부되어 왔다.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국내실향민이 되도록 강요받았다. 또한 기독교 개종자들은 불교도, 무슬림, 또는 부족 공동체에 속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10월 - 2025년 8월:** 남성 목회자 5명이 반군부 지지자로 의심되어 체포되었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흔히 PDF를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군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반적인 양상이다.
- **2025년 2월 14일:** 무장한 남성 10명이 강지타우의 한 본당에 들이닥쳐, 44세의 도널드 마틴 신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했다. 그는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다고 선언하며 이를 거부했고,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그의 장례식은 2025년 2월 16일에 거행되었다.
- **2025년 8월 14일:** 사가잉 지역에서 기독교 청년 40명이 교회로 가던 중 군부에 붙잡혔다. 이들의 행방은 출판 시점까지도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된 기독교인 수	교회나 기독교 건물 공격 혹은 폐쇄 건수	구금된 기독교인 수	강제로 국가를 떠나야 했던 기독교인 수
2026	99	35	129	1,500
2025	60	80	60	1,0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 반올림한 수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 개인 영역

미얀마의 법은 개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인종 및 종교 보호” 법률의 일부인 종교 개종법에 따라, 종교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 등록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면담을 거치고 종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 내용은 공개적으로 게시되기 때문에, 개종자들은 공동체의 압박과 위협에 노출된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개종한다. 개종자들은 종종 가족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며, 가족의 집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다.

## 가정 영역

정부는 “국경 지역 민족 청소년 개발 훈련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학교들은 아동에게 무상교육과 식량을 제공하고 가족에게 매달 쌀을 지급하는 등의 유인책을 통해 소수민족을 끌어들이는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들은 청소년들을 불교로 세뇌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UNHCR, 2017). 군부는 또한 카친족을 포함한 소수민족 청년들 사이에 마약 중독이 퍼지도록 조장함으로써, 소수민족 무장 저항을 약화시키는 전술로 기독교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 지역사회 영역

기독교인들은 지역 공동체와 당국으로부터 배제와 적대에 직면하고 있다. 가정교회들은 감시를 받고 있으며,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버리도록 압박받는다. 기독교인들은 종종 공동체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깨끗한 물과 건축 자재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며, 괴롭힘이나 폭력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된다(Hansard, 2023).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지원은 매우 적거나, 차단되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다. 한 국가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정부는 얼굴 인식, 전화 도청, 인터넷 검열, 소셜미디어 감시와 같은 감시 기술을 사용하여 기독교인들을 추적하고 신원을 확인해 왔다... 특히 기독교인이 다수인 분쟁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군부나 무장 단체에 의해 미행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

## 국가 영역

2008년 헌법 제361조는 불교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며, 종교적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제362조), 국가는 소수자들 사이에서 개종, 종교 간 결혼, 출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지지해 왔다. 기독교인들은 취업과 승진에서 종종 배제된다. 내전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 구호 활동가들과 목회자들은 때때로 저항 세력을 돕는다는 비난을 받는다(Agenzia Fides, 2024). 한 전문가는 국가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모호한 법 아래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교회 영역

군부는 반대 움직임에 가혹하게 대응한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정기적으로 저항 세력을 지지한다는 비난을 받으며, 일부는 살해되거나 투옥되었다. 교회들은 반대 세력의 거점으로 의심받으며 강하게 감시받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교회 건물이나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다. 마바타와 같은 민족주의 운동에 연계된 승려들 역시 기독교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개종자들은 당국과 자신의 가족 모두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위험에 직면한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미얀마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2.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3.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미얀마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 아동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불교 종교교육을 받고, 종교 의식과 축제에 참여하도록 강요받는다 (CRC 제14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공동체 자원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다 (ICESCR 제2조)
- 기독교인들의 가정과 상점은 공격과 파괴를 당하며, 이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ICESCR 제11조)
- 기독교인 여성 개종자들은 불교도 남성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고, 새로운 신앙을 버리도록 압박받는다 (CEDAW 제16조 및 ICESCR 제10조)
- 카친족 기독교인 여성과 소녀들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된다 (CRC 제34조 및 CEDAW 제6조)

## 미얀마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로힝야족은 국제사회의 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 2024~25년에는 민 아웅 흘라잉을 포함한 미얀마 당국자들에 대해 반인도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나 로힝야족에 대한 강제 송환, 살해, 군 징집은 계속되고 있다(HRW, 2024). 방글라데시에 있는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은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송환은 여전히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다른 지역에서는 무슬림과 일부 힌두교도들 역시 모스크 건축 금지와 정부 일자리 배제와 같은 차별을 겪고 있다.



## 오픈도어의 미얀마 사역

오픈도어는 현지 협력자들과 협력하여, 미얀마의 박해받는 신자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 문서 배포
- 제자훈련 프로그램
- 목회 및 리더십 훈련
- 생계 지원
- 가족 및 결혼 관계 강화
- 아동 및 청소년 훈련
- 박해 대비를 위한 성경적 훈련
- 현장 사역



###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